

후속 출산을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Abandoned Their Additional Birth Plans

진경선¹ 김고은²

Kyong-sun Jin¹ Ko Eun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abandoned their additional birth plans since their first child was born.

Methods: During in-depth interviews, mothers were asked to recall their own experiences of motherhoo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Results: The central phenomenon was ‘The burden of raising a child is too heavy for mothers to carry alone.’ The causal conditions were ‘First experience: Unpredictable lif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y’, and ‘Spouse’s absence.’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Expectations and reality of parenting’ and ‘Workplace conditions.’ The mothers used interaction strategies of ‘Defusing conflict only on a surface level: Giving up’, ‘Reliance on grandmothers’, and ‘Downgrading career aspirations.’ These strategies were mediated by intervening conditions, ‘Stereotypes and experiences of non-family nanny’, ‘Child’s development’, and ‘Family conflict.’ The results were ‘Endless guilt’, ‘Ambivalence between independence versus interdependence’ and ‘Unfairness: Why only me?’ Finally,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conflict was identified to account for the steps leading mothers to give up on their birth plans.

Conclusion/Implications: During the first experience of motherhood, mothers’ conflict gets escalated despite their struggles. These experiences might discourage their additional birth plans.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increase fertility rates.

key words motherhood, guilt, ambivalence, unfairness, conflict, fertility rate, additional birth plans

*이 논문은 201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제1저자

성신여대 심리학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kekim@sungshin.ac.kr)

I. 서론

2018년 실시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9~69세 국민

1천 명 중 대다수(93%)가 출산을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기존 출산장려정책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9). 또한, 여성을 ‘인구 정책의 대상이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성 평등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가족-노동시장-지역사회 내 젠더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홍승아, 최인희, 김난주, 김지미, 2018). 이처럼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이삼식 등, 2016),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저출산 관련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최종적으로 후속 출산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같이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심리적 경험에 주목한다 함은 출산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결부 지어 개인적 문제나 책임의 영역으로 환원하려 함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구참여자의 임신·출산·양육과정과 관련한 심리적 경험은 규범, 가치, 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영역이다. 또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정은 심리적 경험인 동시에 여성의 몸의 기능과 감각 경험을 수반하므로, 이를 두고 개별여성의 지극히 사적인 경험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심리적-신체적 경험에 실제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Barlow,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출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맥락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출산 행동을 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산물로 바라보고, 개인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Ajzen & Klobas, 2013).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더불어 개인 또는 부부의 가치관, 신념, 출산 의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 Liefbroere, 2009).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가 갖는 의미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양은, 하지영,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최향준, 2015),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배광일, 2015)과 같은 변인들이 후속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진경선, 2019)에 따르면, 자녀가 만 0세인 1차연도 조사 당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7년 이내 후속 출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분석의 경우 특정 심리적 변인과 후속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경향성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로 후속 출산 의도는 ‘낳겠다’, ‘낳지 않겠다’, ‘모르겠다’와 같이 범주 변인으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범주형 자료에 기반을 둔 분석만으로는 후속 출산 의사결정의 맥락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다. 또한, 진경선(2019)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후속 출산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설문 문항의 경우, 10개 이하의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어머

니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결혼 및 양육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개별적인 변인들이 개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다른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어렵다.

반면, 질적 접근의 경우,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삶의 다른 요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더불어 어떠한 맥락에서 후속 출산 의사결정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한 연구(김나현, 이은주, 광수영, 박미라, 2013; 김은주, 서영희, 2012; 정미라, 김지원, 이영은, 2015)들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에 주목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양육자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를 출산 결정 혹은 후속 출산 포기과정과 연결 지어 논의하지는 않았다. 후속 출산 포기에 관한 질적연구는 정은희와 최새은(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한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은희와 최새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과 ‘양육지원 원조체계의 부족’이 후속 자녀 출산계획 포기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후속 자녀 출산계획을 포기하는 경로에 대해서 깊이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주요 개념을 양육에 소모되는 자원과 이에 대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 출산 포기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대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후속 출산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자녀가 둘인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본 노진형과 김은주(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4인 가족 모델’을 실행하고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가족 내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첫째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자 후속 출산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출산 배경과 양육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권영인, 최지은, 2015; 최옥채, 2019)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로 인해 다자녀를 의도치 않게 갖게 된 경우도 많지만, 특정 성별의 자녀를 희망하거나 가족·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후속 출산을 감행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후속 출산을 실행하는 배경 또한 어머니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 가족가치관, 자아관, 첫째 자녀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심리적 변인과 후속 출산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양적연구와 어머니들의 후속 출산 배경이나 일반적인 양육 경험을 다룬 질적연구 모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후속 출산 포기 결정과 연결 지어 구체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둘 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였으나, 첫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을 포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첫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겪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생애

최초 ‘어머니 되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들이 갖는 심리적 경험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희망하였던 후속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유추해봄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후속출산 포기과정 그 자체를 인과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어머니들이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토대로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 기반한 분석은 어머니들이 첫 자녀 출산이라는 생애전환기적 사건을 겪으면서 달라진 환경과 역할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경험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데 적합하다. 여기서 ‘경험’이란 연구참여자들이 규범, 가치, 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근거이론이 전체로 하는 철학적 토대와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의 심리적 경험을 후속 출산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거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 연구참여자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도적 표집(Patton, 2002)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첫 아이 임신 이전에는 이상적 자녀의 수로 두 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후속 출산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둘째, 합계출산율 산정기준(통계청, 2019)에서 가임기로 보는 49세 미만으로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셋째, 한국아동패널의 중단 자료 분석 결과, 두 번째 자녀는 약 과반수의 비율로 2년 이내 태어난다는 점(진경선, 2019)을 고려하여, 후속 출산 포기 결정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취학 첫째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 후 첫 자녀를 임신하고 현재까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의 지인 중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먼저 선정한 뒤 이어서 다른 연구참여자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출산, 임신, 육아와 관련된 개인 경험을 나누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총 4명의 어머니를 선정하였으며, 일반

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 구분 | 연령 | 결혼기간 | 자녀 연령 |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취업상태 변화 | 학력 |
|-------|-------|------|-------|-----------------------------------|----|
| 어머니 1 | 만 34세 | 8년 | 만 6세 | 법인소속 회계사 → 일반회사 법무팀 → 프리랜서 회계사 | 대졸 |
| 어머니 2 | 만 34세 | 7년 | 만 4세 | 웹 디자이너 | 대졸 |
| 어머니 3 | 만 34세 | 7년 | 만 5세 | 대기업 회사원 → 주부 | 대졸 |
| 어머니 4 | 만 31세 | 3년 | 만 1세 | 유치원 교사 → 주부 | 대졸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발달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유아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 연구팀을 구성한 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결혼, 출산, 양육 경험에 대한 면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혼결정을 내린 시기부터 현재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까지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총 3회에 걸친 두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가이드를 만들었다: ①결혼 및 초기 자녀 계획 ②임신경험 ③출산 및 산후조리경험 ④양육경험 ⑤양육계획 및 이상적 부모/사회상 ⑥어머니로의 삶 ⑦나의 삶 ⑧후속 출산 의사 결정 ⑨자녀가치 ⑩결혼과 출산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심층면담의 질문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연구참여자 기준을 충족하는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에 걸쳐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팀은 예비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상호피드백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면담의 형식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후속 자녀 출산계획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험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담 과정 중 어머니들이 표출하는 감정이나 정서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이 경험 한 심리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보완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와 연결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로 구분하여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초기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예비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연령별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주 양육자나 대리양육자의 변화 혹은 출산휴가·복직·퇴직 등 주요사건에 따라 본인의 양육경험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획일적인 연령별 구분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회상을 도울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심층 면담은 2019년 1월 24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예비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본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면담하기 전 기본적인 정보와 시기별 주 양육자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면담은 주로 조용한 학습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을 특별히 두지 않았으나 대체로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면담 이후, 면담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전사한 면담 자료는 문서 프로그램의 기본 글자 크기(10)로 총 150쪽이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근거이론에 토대를 두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단계의 순서로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첫째,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면담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경험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에 표시하고 메모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메모를 비교·대조하면서 개념들을 명명하고,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험을 상황과 맥락, 대상 등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면서 범주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하위범주와 범주를 도출하였다.

둘째, 축코딩 단계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코딩패러다임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뒤 이러한 범주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도식화하였다. 어머니들이 생애 최초 어머니 되기로서의 발달적 전환을 거치면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중심현상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을 밝히고,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과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요한 심리적 갈등을 조직화하여 제시했다.

셋째,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축코딩을 통해 밝힌 연구참여자들의 주요한 심리적 경험이 어떻게 후속 출산을 어렵게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검토(Lincoln & Guba, 1985)를 통해 연구참여자로부터 면담전사 자료와 초기 분석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받았다. 또한,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심리학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두 연구자 간에 지속적인 동료검토과정을 거치며 대안적인 해석과 판단에 대해 지속해서 성찰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임신·출산·양육경험

희망하였던 후속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한 자녀 어머니들의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경험을

개방코딩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2와 같이 개념, 하위범주,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단계에서 도출된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을 패러다임 구성요소(Strauss & Corbin, 1998)에 근거하여 분석한 뒤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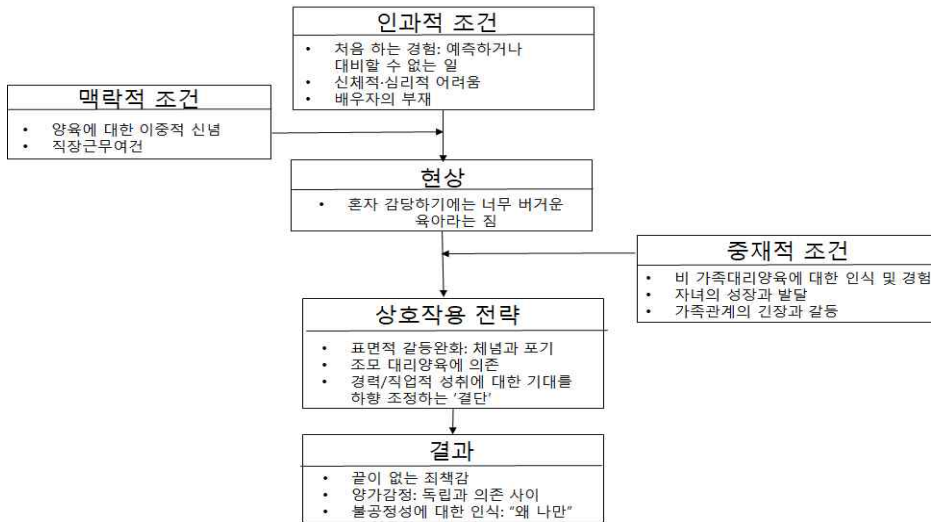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들의 임신·출산·양육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표 2. 개방코딩을 통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 개념 | 하위범주 | 범주 | 요소 |
|--|---------------------------------|----------------------------------|-------------|
| 신중하지 못한 결혼 결정, 준비되지 않은 임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출산과 초기 양육과정 양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불안과 걱정 | 임신·출산· 양육과정의 불확실성 | 처음 하는 경험: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일 | |
|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생각해보지 않은 역할모델, 나의 상황에 맞는 역할모델 부재 | 역할모델의 부재 | | |
| 순탄치 않은 임신·출산 과정; 끝나지 않는 신체적 고통: 젖몸살, 통풍, 금이 간 갈비뼈, 수면 부족/불면증, 불규칙한 식사, 생리적 욕구 불충족 | 임신·출산·양육과정 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 |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 인 과 적 |
|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소외감, 서운함, 고립감, 우울증 예민함, 공황장애,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 | |
| 임신 기간 출퇴근이 용이한 친정집에 거주 산후조리원 후 친정집에서 거주 배우자 직장으로 인한 주말부부 생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친정어머니 | 배우자의 물리적 부재 |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부재 | 조 건 |
|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받지 못함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의 힘들음을 이해 못 함 자녀만 우선시하는 배우자 | 배우자의 정서적 공감 부재 | | |

표 2. 계속

| 개념 | 하위범주 | 범주 | 요소 |
|---|-------------------------------|------------------------|--------|
| 양육을 힘들어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완벽해 보이는' 다른 취업모와 자신을 비교함 | 양육죄책감 | | |
| 도움을 주는 친정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미안함 연로한 친정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 불효하는 것 같은 죄책감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죄송함 | 친정어머니에게 느끼는 미안함 | 끝이 없는 죄책감 | |
| 스스로를 욕심이 많다고 평가함 나를 찾고 싶지만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짐 | 본인의 문제로 돌리기 | | |
| 친정어머니의 간섭, 친정어머니와의 갈등 친정어머니와 배우자 사이의 중재자 친정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내 의지대로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이 힘들 | 독립된 성인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갈망 | 양가감정: 독립과 의존 사이 | 결 과 |
| 자기 합리화 시도: 친정어머니의 생활비 보조 자녀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 친정어머니에게로 확장된 모성 이데올로기: '어머니'와 같은 안정적인 돌봄 전달자 | 불가피한 의존상태 | | |
| 배우자는 자신과 달리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왔다고 인식 배우자에게 느끼는 배신감 공평하지 않은 역할 분담에 대한 억울함: "죽어라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 (친정어머니) | 심리적 공평성의 불균형 자각 |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 "왜 나만" | |

1) 중심현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육아라는 짐

중심현상이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생애 최초 어머니 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주요한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변하였으며, 이는 “내 삶이 없어지는” 혹은 “내가 없어지는 느낌”(어머니 4)과 같다고 하였다. 여성으로서 “나의 희생이 너무 크고”, “내가 잃는 게 너무 많은”(어머니 2)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되풀이하여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을 자신에게 “추가된 무거운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뭔가 내가 쌓아 올린 게 다 무너지고 다 끝나는”(어머니 1)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추가된 ‘어머니’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자아실현과 직업적 성취도 이루고 싶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슈퍼우먼이겠지요. 전 슈퍼우먼은 아닌 것 같아요(어머니 2).” 어머니들은 한정된 시간과 자신의 체력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슈퍼우먼’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간신히 깨질 걸 틀어막고 있다”(어머니 2)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어머니3), 결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심정을 “어떻게 살지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살지 막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것처럼”(어머니 3)과 같이 드러내기도 했다.

2)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이란 ‘왜’ 어머니들이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처음 하는 경험: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일,’ ‘신체적·심리적 고통,’ ‘배우자의 부재’가 이에 해당한다.

(1) 처음 하는 경험: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일

어머니들은 모두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거나 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자신의 결혼 이후 삶에 대해 배우자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첫 자녀 출산을 진지한 고민 없이 마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획된 임신이었다면 이후의 양육과정이 더 긍정적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낳았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막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낳았으니까. (어머니 4)

(준비된 출산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을 낳아서 키우면 간절히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면 남편이나 아이나 좀 더 행복감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도 많이 하지요. (어머니 3)

어머니들이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것은 일상의 비예측성과 첫 양육 경험이 주는 불확실성인 것으로 보인다.

항상 하루하루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애가 언제 낄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그런 거. (어머니 4)

아이를 처음 겪어보니까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2)

초기 양육에서 어머니들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은 역할모델의 부재와도 연결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어머니, 특히 취업모를 위한 역할모델을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했다. 한 어머니가 “엄마라고 해서 옛날부터 엄마였던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어머니3)라고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 되기로의 생애전환이 어떠한 의미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빠는 가장으로서 일에 매진하는 그리고 가정일은 양육부터 가정대소사 이런 거까지도 다 엄마가 총괄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저는 일도 하면서 가정도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롤모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1)

(2) 신체적 · 심리적 어려움

어머니들은 공통으로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극단으로 지치는 경험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들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출산에 대하여 “지옥”(어머니 2) 혹은 “그로테스크한 경험”(어머니 3)과 같이 높은 강도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적 어려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어머니 4)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어머니들은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 과정에서도 젖몸살, 갈비뼈 골절, 급격히 저하된 체력 등 신체적으로 “암흑기”(어머니 1)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들의 신체적 고통은 양육과정에서도 이어지는데, 특히 신생아기와 영아기에 수면 부족을 경험하며, 이는 후에 수면장애로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을 “형벌”(어머니 2)과도 같은 큰 고통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고통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와도 공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어머니들은 주어진 역할과 일상의 과제들을 다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 혹은 압도감을 느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 막히는 일상과 이를 회피하거나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들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때 정말 극도로 힘들었을 때의 마음은 ‘엄마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는 싫지 않지만 내 정신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서 잠깐 누군가에게 맡겨야겠어. 나 혼자 있고 싶어요.’였어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어머니 2)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탈출이다. 회사로의 탈출밖에 없다는 생각에 (육아휴직) 6개월 정도 하고 다시 돌아왔죠. (어머니 3)

어머니들은 과중한 양육부담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자신이 아내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심적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를 양육했던 시기를 회고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회피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경험한 심리적 고통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로운 시기를 좀 지난 것 같아요. 되게 피로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분이 나아져서,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게 아니고 그 시기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2)

(3) 배우자의 부재

어머니들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재란 거주공간의 분리나 출·퇴근으로 인해 생기는 물리적 부재뿐 아니라 공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단절까지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어머니 1), 어머니만 출·퇴근이 쉬운 친정집에서 지내는(어머니2) 등 임신 기간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물리적 부재가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시기에 공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산후조리 문화의 특성상 어머니와 신생아만 약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따로 지내고 퇴소 후에도 6개월 혹은 9개월까지도 친정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신생아 양육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아버지는 양육에서 물러나며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까지도 지속되었다.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와 공유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물리적 부재와 함께 정서적 고립감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양육 자체의 실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이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함에서 오는 심리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전적으로 그냥 저에게 그냥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떠넘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 3)

너무 힘들고, 왜 나 혼자인 느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느낌. 나 혼자서만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왜 키우나 그런 느낌... 너무 비참해요. 내가 내 애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애 봐주는 기계인가? 난 뭐지?’ 이런 생각. (어머니 4)

어머니들의 심리적 고립감은 양육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지 못할 때 더욱 증폭되었다. 다음과 같이 배우자 본인은 양육에서 한발 물러나 있으면서 반대로 ‘어머니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야 한다’는 가치관을 내비치면서 자녀의 상황만 고려할 때 어머니는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나(남편)는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양육을 도와주는 친정) 엄마랑 힘든 게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크다, 라고 나는 받아들이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아이고, 아이고 짱하다 이게 안 되니까. (어머니 2)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을 이끄는 데 기여하는 상황으로 외부 환경이나 문화적 신념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장근무여건’과 ‘양육에 대한 이중적 신념’이 맥락적 조건에 해당한다. 즉 직장근무여건과 양육신념에 따라 어머니들이 임신·출산·

양육과정에서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부재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장근무여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직장에 근무하던 중에 임신하였는데, 업무의 강도나 속성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여부와 시기 그리고 복직 일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운 정도도 달라졌다. 어머니들은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나 동료들에게 전가될 업무 분담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대체로 총 5~9개월간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 반면,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3일 혹은 1주일 남짓의 출산휴가는 산후조리와 신생아기에 두드러지는 배우자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맥락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여건은 배우자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며 이는 다시 어머니들이 처음으로 겪는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일상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더 힘들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남편이 “내가 육아휴직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돌아오면 내 책상이 어디가 있을지 모른다...”
어, 봤다(고) 그랬어요. 되게 용기 내서 일 년 육아휴직하고 온 동료를 봤는데,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났대요. (어머니 2)

애를 하루 종일 나 혼자 본적이 없으니까 막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분유 타고 너무 바쁘는데 손은 부족한데 애기는 막 울고 내가 제정신을 잘 차릴 수 있을까,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막 그런 걱정이 됐지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좀 길게 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한 달이든, 남편 휴직이 회사에서 보장 가능하게 좀 길게 됐으면 좋지요. 그러면 사실 애기 키우면서, 가장 힘든 때가 태어나서 제 생각엔 한 6개월, 7개월 때까지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요.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나 도우미보다 내 남편이면 제일 좋지요. (어머니 4)

(2) 양육에 대한 이중적 신념

어머니들은 ‘부부간 육아 분담에 대한 기대’와 ‘모성이데올로기’라는 문화적 신념을 동시에 내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신념은 앞서 살펴본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 신체적·심리적 고통, 배우자의 부재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어머니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상호책임의 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내 자신의 이상과는 달리 배우자와 함께 하는 양육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

엄마 아빠 둘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거. 힘들어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으쌰으쌰 용기

를 북돋아 주면서, ‘이건 내가 할게, 저건 너가 해.’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해가면서. 좀 그런 부부가 이상적이라고 봐요. 누구 한 명이 전담마크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되죠. 그게 안 되죠.

(어머니 4)

이와 동시에 어머니들은 모성은 특별하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문화적 신념도 내재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들이 여성의 몸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과업을 감내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 양육 초기 어머니가 맡게 되는 역할이나 책임을 정당화하는 맥락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휴직을 했으니까, 집에 아이랑 나,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나고, 아이랑 붙어있는 사람도 나고, 휴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애를 뭐 먹이려고 해도, 씻기려고 해도, 젖병을 세척을 하려 해도 다 지금 당장 아이 옆에 있는 건 나니까.

(어머니 2)

이러한 양육에 대한 이중적 신념은 어머니들이 양육의 부담을 배우자와 적절히 공유하지 못할 때 그러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도, 이와 동시에 좋은 어머니라면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4) 중재적 조건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버거운 양육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정한 전략의 사용을 촉진하거나 이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두고 중재적 조건이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비 가족대리양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자녀의 성향과 발달 상태’, ‘가족 관계의 긴장과 갈등상태’가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며, 이는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상호전략을 강화하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1) 비 가족대리양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어머니들은 비 가족대리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이 있으며 이는 다음 상호작용 전략에서 살펴볼 내용인 조모 대리양육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 돌보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였으며,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시터 이모 분을 쓰니까 좀 불안해서 집에 곳곳에 CCTV를 설치해놨는데... 항상 애기가 혼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자기랑 별로 이렇게 유대감을 막 형성해주거나 자기를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하루의 전부를 보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한테는 그냥 너무 참기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어머니 1)

동시에 어머니들은 보육·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또한 비가족대리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편은) 남의 손에 (아이를) 절대 맡길 수 없대요. 안전과, 걸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이를 남몰래 학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긴 절대 아이를 그렇게 맡길 수 없대요.
(어머니 2)

종일반에 두면서 프로그램이 있는 건, 낮시간 밖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오후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율시간이 있어요, 자율시간이 너무 길고 방치되는 것도 있고 사실 선생님이 뭐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방치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3)

너무 어렸을 때 막 기관에 보내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어머니 4)

(2) 자녀의 성향과 발달 상태

어머니들의 상호작용전략을 중재하는 또 다른 조건은 ‘자녀의 성향과 발달 상태’로 자녀의 애착 형성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였다. 즉 자녀의 성향이나 발달 상태에 따라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의 부담과 책임도 달라지면서 비 가족 대리 양육의 부분적 이용이나 조모 대리양육에 대한 의존양상이 달라졌다. 이는 어머니들이 휴직, 이직, 퇴사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애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렇게 그 정성을 쏟아서 양육을 했더라면 애가 더 빨리 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발달도 사실은 좀 느렸던 것이 아닐까. 그 양육방법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머니 1)

아이가 그때도 워낙 많이 울었어요. 맘대로 안 되고 워낙 예민하고 의사 표현이, 발달이 느린 아이였는데, 자기 의사 표현이 안 되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31개월부터 언어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이후 42개월 정도). 그 정도에 제가 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3)

(3) 가족 관계의 긴장과 갈등상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가족 관계의 긴장과 갈등상태’는 이에 따라 어머니들이 양육의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상호작용의 전략과 그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어머니들은 자녀의 양육책임을 둘러싸고 배우자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했으며, 심할 경우 부부간 대화단절 및 이혼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아기 키우는 건 힘든 건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후속 출산을 포기한 이유를) 딱 꼽자면 일단 아기를 낳고 오빠(남편)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혼자인 것 같고, 그 힘들음을 호소할 데가 없고, 공감받지 못하고. 너무 외로운 그거를.
(어머니 4)

이러한 부부갈등은 어머니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조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는 장서 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친정어머니와 어머니 자신의 관계적 긴장 등 또 다른 가족 갈등으로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했다.

그거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그럼 그럴 거면 시댁에서 봐주지 왜 우리 엄마가 혼자 고생해야 되냐’ 그래서 막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 3)

장서 갈등이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이야기 못 하는 거고, 엄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 하는 거고, 중간에 완전 끼인 거죠.
(어머니 3)

5) 상호작용전략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육아 문제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용한 전략은 ‘표면적 갈등완화: 체념과 포기하기’, ‘조모 대리양육에 의존하기’,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결단 내리기’로 나타났다.

(1) 표면적 갈등완화: 체념과 포기

어머니들은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발생한 부부갈등이 심화하며 부부갈등의 원인을 실제로 해결하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기대를 수정하였다. 즉 ‘체념’과 ‘받아들임’의 형태로 표면적 갈등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약간 체념 그리고 받아들임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어쨌든 **의 주 양육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그냥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1)

그러나 이러한 체념에 기반을 둔 표면적 갈등완화는 어머니들에게 결혼만족도의 개선, 나아가 근본적으로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해서 자신이 더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나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셀프 체념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머니 2)

(2) 조모 대리양육에 의존하기

어머니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비 가족대리양육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자녀의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대처 방식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다든지(어머니 1) 친정어머니가 같은 집에 거주(어머니 2)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모 대리양육이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사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친정 근처로 오고 나서부터 다시 내가 좀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항상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너같이 키우면 애 진짜 못 키울 것 같다고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2)

남편이랑 같이 안 있었던 이유도 남편이 그 울음소리에 대한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져 가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친정집으로 간 거였어요. 그게 계기 중의 하나였어요. (어머니 3)

그러나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하는 어머니로서는 신뢰하지는 않지만, 보육·교육기관의 이용을 시도해본다든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면서 조모 대리양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베이비시터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 남의 손에 못 맡긴다’ 주의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한 상황이니 베이비시터를 쓰고 엄마의 감독하에 하자’ 해서 베이비시터를 일 년을 썼어요. (어머니 1)

(3)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 하향 조정하는 결단 내리기

어머니들은 양육의 힘들음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하향 조정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거나(어머니 1, 어머니 2, 어머니 3), 보다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보수가 이전 직장에 비해 적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거나(어머니 1), 혹은 퇴직(어머니 3, 어머니 4)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맞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결론이 됐고, 나올 때는 그 이후에 뭘 할지는 결정이 되진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1)

어머니들은 이처럼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퇴사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사를 하고 집에만 있으면 저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이 오는 그런 성격이에요....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제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머니 3)

6) 대처전략의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당면한 양육문제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공통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경험이 있는데, 이는 (1) 끊임없는 죄책감, (2) 양가감정: 독립과 의존 사이, (3)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왜 나만” 의 세 범주로 크게 나뉜다. 이는 어머니들이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양육적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요한 심리적 현상인 동시에 어머니들의 조절/적응과정 전반에 걸쳐 후속 출산 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끝이 없는 죄책감

어머니들은 임신 기간부터 자녀의 건강과 안녕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녀에게 죄책감을 경험하거나, 혹은 유산을 경험한 어머니마저도 자책하는 등 죄책감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내가 우리 아기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주고 있네. 그때부터 사실 이런 죄책감이 되게 내 감정을 많이 지배했던 거 같아요. (어머니 1)

(유산은) 내 몸을 보살피지 못했던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은. (어머니 2)

어머니들의 죄책감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심화된다. 어머니들은 좋은 엄마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성에 대한 신화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흔히 일어날법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늦은 퇴근 길에 아이돌보미가 집에 갈까 두려워 울고 있는 자녀를 CCTV로 보며 깊은 죄책감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양육을 힘들어하는 것 자체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퇴근하면서 택시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는. 택시 아저씨가 나한테 도대체 그러면서 회사 어떻게 다니냐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 1)

힘들었던 기간 동안, 한 일 년 동안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모성애가 없나 보다, 그래서 죄책감도 되게 많이 들고 그 부분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2)

저는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가지고 얘기가 짜증내거나 하면 나도 같이 막 좀 짜증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아마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요. (어머니 4)

나아가 어머니들의 죄책감은 양육의 힘듦에 대해 대처할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결국 가족인 친정어머니에게 양육을 의존하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기에 조모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게 된다.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나는 여유로웠어요. 엄마는 너무 정신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엄마만 항상 힘드셨던 거 같고. (어머니 1)

아이한테 또 미안하고, 또 엄마한테 또 미안하고. (어머니 2)

나는 낳아놓고 조부모에게 모든 양육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실은 자식 된 도리로서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머니 3)

또한, 상호작용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성취 목표를 향해 조절하는 희생을 감내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니들은 자신이 감내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본인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되게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아이이름)이 **이하고 입에 달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 일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인간 자체로서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한테 항상 미안하다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미안하고 죄책감이 되는 그 상황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중적이고 아직은 좀 미숙한... (어머니 1)

퇴사할 때 항상 미안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나의 부모님한테 나의 부모님은 이리라고 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닐 텐데 결국은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랐을 텐데 결국은 이제 되돌이표가 된 거죠. 본인들 주부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3)

(2) 양가감정: 독립과 의존 사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독립된 성인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갈망과 불가피한 의존상태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심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래도 **이가 클 때까지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서”(어머니 1)와 같이 의존을 합리화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적 관계, 특히 부모-자녀의 위계적 관계 안에서 어머니들은 양육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통제감 감소를 겪으며 독립에 대한 갈망 또한 느끼는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즉, 자녀를 위해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지만 그 결과로 어머니들은 독립과 의

존의 줄타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제 자체가 성인으로서 독립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간 그래서 양육방법에 있어서도 엄마의 의견이 훨씬 많이 반영이 되고 저에 대한 엄마의 간섭도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옷은 왜 그렇게 입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왜 여기서 샀느냐, 그리고 가정용품 구매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엄마 간섭에 대해서 내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독립된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어머니 1)

아기에 대한 게 아니어도, “소금 어딴니?” 그런 실생활에 대한 부분도 해가지고 그땐 같이 살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하나에 조용하게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엄마는 다 화나면 화난 대로 다 풀어버리니까 부딪히는 것도 엄청 많았죠. (어머니 3)

어머니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불가피한 조모 대리양육의 상황에서 독립에 대한 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남편은) 가정에 참견하지 말아 달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서 장서 갈등이 심해졌죠. 이거는 좀 중간에서 끼인 것도 끼인 거고 그러면서도 시댁이랑도 “왜 장모가 그런 얘기를 자기 아들한테 하나!” 식으로 시댁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어머니 3)

(3)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왜 나만”

어머니들은 ‘양육자’로서의 삶과 ‘나’로서의 삶의 양립이 부모 중 어머니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인 자신과는 달리, 아버지인 배우자는 “원한대로 계속 살아왔다”(어머니 2)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언급된 배우자의 물리적 및 정서적 부재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짊어진 단순한 양육 부담 이상의 의미이다. 어머니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성은 오히려 증폭되어 자신으로 사는 삶을 더욱더 포기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다른 심리적 갈등인 죄책감과 양가감정 역시 왜 유독 ‘나만’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욕심인 거 같아요. 결국은 **아빠도 그렇게 야근을 하는 게 그 직종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조절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인하는 걸 거 같아요. (어머니 1)

(후속 출산을 원하는 남편은) 뭔가 자기가, 자신이 원한대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고. 자신이 원한대로 아이도 낳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어머니 2)

저도 이제 중점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직급이에요.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나서서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은 직급에 이제 진급을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 누구 하나 희생이 된다면 결국은 어쨌든 여자가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고. (어머니 3)

(남편은) 자기라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어머니 4)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단순히 양육 자체의 힘들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부모 중 어머니에게 문화적으로 부여된 불공정한 힘들을 지각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뿐 아니라 친정어머니에게 부가된 역할의 부당함도 포함한다.

왜 나만 이렇게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밤에 힘들게, 잠도 못 자고, 같은 회사 다니는데 같은 일도 하고 심지어 일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고생은 친정엄마는 죽어라 하고 사위라는 사람은 사실 육아에 도움이 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어머니 3)

2. 후속 출산 포기과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갈등단계

어머니들이 인식한 첫 자녀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선택코딩을 시행하였다. 선택코딩은 모든 자료를 통합하는 핵심범주를 선정하고 다른 범주들과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 포기과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갈등단계’가 핵심범주로 도출되었다(그림 2). 어머니들은 임신·출산·양육을 처음 경험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어머니 되기로의 삶의 전환을 맞게 된다. 이 초기갈등 단계에서 어머니들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물리적·심리적 부재 역시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속적인 양육 부담과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어머니들의 초기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된다. 어머니들은 양육의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며 출산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만 같은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게 된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상호작용 전략은 어머니들이 중심현상으로 경험하는 양육의 힘들을 적절히 해결해내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은 긴장과 갈등의 주요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체념하고 포기하고, 비 가족 대리양육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조모 대리양육을 병행하거나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표면적인 갈등 해결에 그칠 뿐이다.

상호작용의 결과, 어머니들은 오히려 중심현상의 해결이 아닌 ‘끝이 없는 죄책감’,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느끼는 양가감정’,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심화된 심리적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들이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양육적응과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혹은 필수

적으로 수반되는 주요한 심리적 경험인 동시에, 어머니들의 양육적응과정 전반에 걸쳐 후속 출산 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첫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재 좋은 어머니 그리고 딸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결국은 후속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난 지금 좋은 부모가 아닌데,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아닌데, 또 낳으면 둘 다한테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 2)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과 배우자가 독립된 성인으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어렵게 받아내야만 한다면 후속 출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내가 부모데 내가 애를 양육할 수 없다면 그 아이를 내가 왜 낳아야 하는 건지 내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어머니 1)

어머니들은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에 대처하고 또 이에 수반되는 심화된 갈등을 경험하며 “나 혼자 고군분투”(어머니 4) 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이 갈등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강 건너 불구경”(어머니 1)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들이 임신, 출산, 양육을 거치며 마주한 초기갈등, 갈등표출, 표면적 갈등 완화 시도, 그리고 심화된 갈등의 모든 과정의 어려움을 배우자와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였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낳아봤자 힘들 게 뻘해요. 지금처럼 똑같은 게 되풀이될 게 뻘한데 내가 왜 낳아? 이런 생각. 너무 외로운 그거를, ‘내가 왜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애기 낳고 그걸 왜 또 해?’ 그런 생각. 나 혼자 키울 건데 내가 왜. (어머니 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출산을 제고 정책의 수단으로 객체화하는 제한적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심리적 경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사전에 조작적으로 정의한 심리적 변인이 아니라, 희망해온 후속 출산을 포기하게 된 어머니들의 주체적인 경험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들의 후속 출산 포기 결정은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다양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후속 출산 포기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발생한다고 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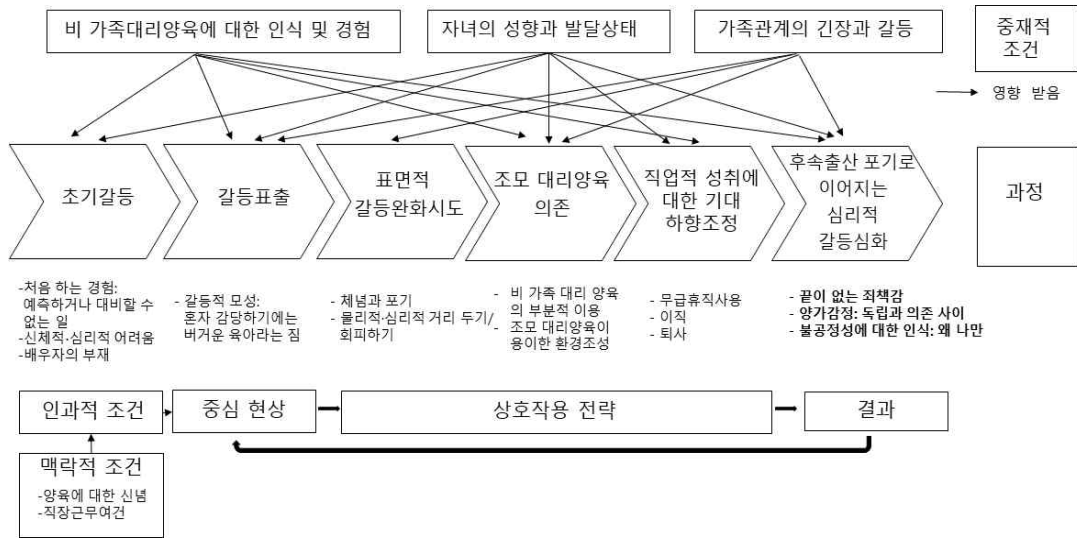


그림 2. 후속 출산 포기과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갈등단계

어머니들이 임신·출산·양육과정 중에 지속해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이 증첩되고 증폭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어머니들이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 끝이 없는 죄책감,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느끼는 양가감정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같이 심리적 갈등을 지속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희망하는 후속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심리적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아름다운 혹은 완벽한 모성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걸쳐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버거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를 임신·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철두철미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자신을 탓하고,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없을 것이다’와 같은 죄책감을 내면화하였다. 임신 초기부터 태아를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시작되는 어머니의 죄책감은 양육과정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의 일상에서 끊임없는 죄책감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Rotkirch & Janhunen, 2010)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들이 타인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일상적인 분리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동시에 자신이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Mann & Thornburg, 1987). 특히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타인양육 죄책감이 보육시설이나 비 가족대리양육자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뢰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이주연, 2014).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이러한 타인양육 죄책감을 낮추려는 방안으로 혈연관계인 자녀의 조모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거나 이와 동시에 어머니 본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이직·퇴사를 하는 등 자녀와 함께하는 시

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해보지만, 이는 여전히 ‘잘’ 해내기 어렵고 기대와 달리 또 다른 방식으로 죄책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뿐 아니라 대리양육을 담당해주는 자녀의 조모를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다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자신의 양육역할 수행이 이상적인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족함, 미안함, 죄의식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고 양육죄책감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성정원, 2011)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는 맥락이 어머니들의 양육역할 수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 및 양육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대상을 향해 지속하여 느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죄책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이주연, 2014)는 만 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 이후 자녀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함을 밝혔다. 이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초기 영아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죄책감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후속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배우자의 지지가 어머니들이 느끼는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왔는데(김은영, 이주연, 2014; 정나래, 김희수, 안선희, 201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양육과정까지 지속하는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부재가 심화되면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죄책감 또한 증폭됐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배우자의 지지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교사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나 직장의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등이 죄책감을 완화하는 데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연, 2014; 정나래 등, 2017).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양육 참여, 그리고 가족 구성원, 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에 기반한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 양육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완벽한 모성에 대한 신념을 수정하고,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 (이진희, 배은경, 2013)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어머니들이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버거움에 대해 자책 없이 공개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확장된 모성이테올로기에 기대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여성(친정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존적 관계, 특히 부모-자녀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속감이나 얽매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모의 양육 동기나 전반적인 양육 경험을 살펴보고 조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김미옥, 송승민, 이사라, 2015; 전연우, 김윤숙, 조희숙, 2012; 주은선, 강명진, 최민정, 2018), 공통으로 조모와 어머니 간 양육역할 인식 및 양육 태도의 차이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조모와 어머니와의 관계적 긴장과 갈등이 단순히 양육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어머니가 조모와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여 그 경험의 의미

에 대해 질적으로 살펴본 이재림(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존 관계를 두고 조모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계지만 자신에게는 ‘만족스럽고 얻는 것이 많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현재의 의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모의 불만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돌봄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특정한 양육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손자녀 돌봄 시간 줄이기 등을 시도하며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만족스럽고 얻는 것이 많은 관계’라는 것은 불가피한 의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과 갈등을 지속하여 관리하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긴장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어머니 스스로 내적 갈등을 지속하여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부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친정어머니에 대한 의존 관계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심적 부담을 지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독립된 성인 주체로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üscher와 Pillemer(1998)가 제안한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기도 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세대 관계를 설명해 준다. 심리적 차원의 세대 간 양가성은 같은 대상에게 상충된 감정이 공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친정어머니에게 고마우면서도 버겁거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의존감과 자율성이라는 상반된 욕구는 세대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을 대표하는 양 측면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진경, 이재림, 2018). 특히 이러한 양가감정은 결혼한 딸이 출산과 함께 친정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게 되면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김인지, 이세인, 이숙현, 2010), 이는 양가감정을 갖는 대상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혼합된 정서의 경험은 부정적 정서만을 경험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유도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Watkins, Scheer, Ovnicek, & Kolts, 2006). 이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대상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양가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영역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결국 그 이면에는 임신·출산·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어머니 그리고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문화적 신념(Lee & Bauer, 2013)과 배우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모로부터 양육의 도움을 받은 어머니들이 감사함 뿐 아니라 죄책감이나 버거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함께 경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존 심리학 연구와 상당히 일관적인 결과이다. 보편적으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수준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권장되지만(Sin & Lyubomirsky, 2009), 이러한 효과가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보다 적게 나타난다(Layous, Lee, Choi, & Lyubomirsky, 2013).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죄책감 그리고 부채감(indebted)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가까운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은 타인에게 걱정이나 폐를 끼치

는 것으로 생각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낀다(Kim, Sherman, Ko, & Taylor, 2006). 이러한 두 가지 문화적 신념, 즉 자녀는 가족 안에서 양육되어야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신념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머니들이 부채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자녀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신념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들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어머니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부여된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버거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몸이 감내해야 했던 임신과 출산의 부담은 아버지의 물리적 부재로 인해 양육과정까지 지속하며, 어머니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에 가장 적합하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의 몸이기에 겪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왜 ‘나만’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의 주요한 책임을 떠맡으면서 지속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독립된 자아로서의 삶이 부모 중 어머니에게만 유독 어려운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수용하면서, 배우자에게 어머니와 동등한 양육분담과 책임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대를 낮춰도 보지만 이마저도 어머니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정서적 공감과 지지가 없는 상태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심화하면서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아주 어린 영아들조차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도덕적 원칙인 만큼(Sloane, Baillargeon, & Premack, 2012)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Robbins, Ford, & Tetrick, 2012).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Lerner, 1980), 특히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고 있다는 믿음)은 삶의 만족감 증가를 예측하고(Lucas, Kamble, Wu, Zhdanova, Wendorf, 2016),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믿음)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예측한다(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8).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출산 이후 자신이 기대하였던 양육역할의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삶 전반의 변화 역시 배우자보다 자신에게 과중하게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정당한 대우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다면 어머니들이 자녀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불공정성은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후속 출산 증진을 위해서는 모성과 부성이 양육에 있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의 신생아 시기부터 양육에서 상당 부분 뒤로 물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모와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그 이후의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맡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 그리고 아버지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직장근무여건 등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아버지의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한 국내 한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결과, 아버지들은 육아의 기쁨과 힘들음을 경험하면서 아내의 고충과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복직 후 돌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었다(최새은, 정은희, 최슬기, 2019).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아버지 출산휴가의 연장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녀 양육에는 부모의 동등한 책임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포기한 한 자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는 후속 출산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경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맥락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후속 출산을 실행한 둘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이기는 하나, 어머니들의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회고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해당 시점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합당한 참가자를 유의표집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배광일, 2011), 임신과 출산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에 주목하고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아버지들은 첫 자녀 출산과 양육과정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후속 출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어머니 대상 연구와 아버지 대상 연구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권영인, 최지은 (2015). 다자녀의 부모로 살아가기: 세 자녀 부모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역할 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83-104. doi:10.7466/JKHMA.2015.33.4.83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doi:10.4069/kjwhn.2013.19.3.188
- 김미옥, 송승민, 이사라 (2015). 맞벌이 가정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양육 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모와 취업모 관점에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239-269. doi:10.14698/jkce.2015.11.239
- 김양은, 하지영 (2016). 여대생들의 출산 및 양육, 자녀가치관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에 관한 이해.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21-140.
- 김은영, 이주연 (2014).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67-180. doi:10.7466/JKHMA.2014.32.1.167
- 김은주, 서영희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3. doi:10.16978/ecec.2012.7.1.005
- 김인지, 이세인, 이숙현 (2010).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질적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48(5), 73-85.
- 노진형, 김은주 (2006). 둘째 자녀 출산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7(4), 111-138.
- 배광일 (2011). 출산 의도 및 출산 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이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4), 59-84. doi:10.16999/kasws.2015.46.4.59
- 성정원 (2011).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최효진, 계봉오, 김경근, 김동식, 서문희 등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림 (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doi:10.7466/JKHMA.2013.31.2.001
- 이주연 (2014).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59-177. doi:10.14698/jkce.2014.10.3.159
- 이진경, 이재림 (2018). 한국판 세대 간 심리적 양가성 척도 타당화: 청년자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105-130. doi:10.21321/jfr.23.3.105
- 이진희, 배은경 (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로-위니콧의 유아정서발달이론과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3(2), 35-75.
- 보건복지부 (2019. 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4200&CONT_SEQ=327714&FILE_SEQ=249906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전연우, 김윤숙, 조희숙 (2012).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정나래, 김희수, 안선희 (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대한 남편의 협력 및 어린이집 만족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41-155. doi:10.7466/JKHMA.2017.35.4.141
- 정미라, 김지원, 이영은 (2015). 12개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어려움과 그 의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255-281.
- 정은희, 최새은 (2016). 둘째자녀 출산 포기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28(3), 131-161. doi:10.21478/family.28.3.201609.005
- 주은선, 강명진, 최민정 (2018).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조모와 어머니의 보고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5), 19-46. doi:10.14698/jkce.2018.14.05.019
- 진경선 (2019). 만 0 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4(2), 175-192.
- 최새은, 정은희, 최슬기 (2019).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보건사회연구**, 39(4), 280-319. doi:10.15709/hswr.2019.39.4.280

- 최옥채 (2019). 저출산 시기 다자녀 부모의 결혼과 출산 경험. *동광*, 114, 54-90.
- 최항준 (2015). 취업모의 심리변인, 사회적 지원변인, 경제변인 및 자녀(영아)의 기질변인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89-114.
- 통계청 (2019. 8). **2018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67829> 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홍승아, 최인희, 김난주, 김지미 (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doi:10.4054/DemRes.2013.29.8
- Barlow, K. (2004). Critiquing the “good enough” mother: A perspective based on the Murik of Papua New Guinea. *Ethos*, 32(4), 514-537. doi:10.1525/eth.2004.32.4.514
-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comfort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2), 1595-1607. doi:10.1177/0146167206291991
- Layous, K., Lee, H., Choi, I., & Lyubomirsky, S. (2013). Culture matters when designing a successful happiness-increasing activity: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8), 1294-1303. doi:10.1177/0022022113487591
-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2), 381-402. doi:10.1111/jomf.12014
- Le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8). Just world beliefs, perceived stress, and health behavior: The impact of a procedurally just world. *Psychology and Health*, 23(7), 849-865. doi:10.1080/08870440701456020
- Lucas, T., Kamble, S. V., Wu, M. S., Zhdanova, L., & Wendorf, C. A. (2016).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or self and others: Measurement invariance and links to life satisfaction in four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2), 234-248. doi:10.1177/0022022115615962
-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13-425. doi: 10.2307/353858
-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doi:10.1080/0300443870270304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Philipov, D., Thevenon, O., Klobas, J., Bernardi, L., & Liefbroer, A. (2009).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REPRO)*. Retrieved July 30, 2020, from http://www.oew.ac.at/vid/download/ edrp_1_09.pdf

- Robbins, J. M., Ford, M. T., & Tetrick, L. E. (2012). Perceived unfairness and employee health: A meta-analytic integr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2), 235-272. doi:10.1037/a0025408
- Rotkirch, A., & Janhunen, K. (2010).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doi:10.1177/147470491000800108
- Sin, N. L., & Lyubomirsky, S. (2009). Enhancing well-being and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A practice-friendly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5), 467-487. doi:10.1002/jclp.20593
- Sloane, S., Baillargeon, R., & Premack, D. (2012). Do infants have a sense of fairness? *Psychological Science, 23*(2), 196-204. doi:10.1177/0956797611422072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Watkins, P., Scheer, J., Ovnicek, M., & Kolts, R. (2006). The debt of gratitude: Dissociating gratitude and indebtedness. *Cognition & Emotion, 20*(2), 217-241. doi:10.1080/02699930500172291

논문투고: 20.04.06
수정원고접수: 20.07.14
최종게재결정: 20.08.04